

“농협 조합장 선거 ‘돈선거’ 오명 벗자”

내년 3월 전국 동시 실시 앞두고 각종 비리 근절
광주시·전남도 선관위,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내년 3월11일 첫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돈 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등에 들어갔다.
광주시 선관위와 전남도 선관위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그동안 ‘금권 선거’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의 ‘오명’을 벗기 위

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공명선거 실천대중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22일 농협중앙회 광주지회본부에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갖는다.
다음달부터는 각 조합 총회 등을 계기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등을 통해 선거의 조기과열 방지와 함께 공명선

거 분위기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전남도 선관위도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남지역을 4개 권역(광주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으로 나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선거 아카데미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반행위 사례 중심으로 조합

장 선거 관련 제한·금지행위에 대해서도 강의가 이뤄진다.
앞서 전남도 선관위는 83명의 공명선거 상시지원단 및 조합장 선거 지원단을 모집했고, 일부 지역 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슬로건 공모도 나섰다.
한편, 광주에서는 농협 15곳, 축협과 산림조합 각 1곳 등 모두 17개 조합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전남에서는 농협 149곳, 수협 17곳, 산림조합 19곳 등 총 185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조선대 손잡고
호남권역 재활병원 살리기
자문단 구성 운영비 지원

광주시가 부실운영으로 장애인 재활 기능을 상실한 ‘호남권역(장애인)재활병원’ 살리기에 나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장애인단체와 참여자치 21, 광주시의회, 조선대병원 등으로 구성된 ‘호남권역재활병원 비상대책자문단’은 회의를 열고 시설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지원 등에 합의했다.



“에볼라 완치 됐어요” 시에라리온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국경없는의사회(MSF) 소속 노르웨이 여의사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집중적 격리치료를 받은 끝에 완치됐다고 MSF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완치된 노르웨이 여의사가 이날 오슬로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산하기관장 청문회 도입 성과, 걸맞기 질문엔 아쉬움

광주시의회 민선 6기 첫 임시회 시정질의 결산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시정질문을 가진 광주시의회의 제23회 임시회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명의 의원 중 15명이 조선이라는 점에서 활발하고 역동적인 시정질문을 기대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는 등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경우 삼임위 소속 의원이 단 한명도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몰제’로 사라진 ‘교육위원’의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와 민선 6기 들어 논란이 되어온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문제 등은 운장현 광주시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개선 방안과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의 안전대책 요구, 민선 6기 시의회의 집행부의 소통부재 등은 시의적절한 질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상당수의 질의가 명확한 해결책 대신 ‘검토하겠다’, ‘노력하

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그쳐 ‘방대한 질문보다 좀더 세밀한 집중이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시의회는 또 이번 회기동안 ▲광주시 국어진흥조례안 ▲광주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전을 처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 234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45일간 열고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2014정리추경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순태 칼럼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클로(cyclo)를 탔다. 자전거 앞에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움직이는 시클로를 타고 한 시간 동안 울드시티를 돌았다.
오토바이며 자동차 뚝뚝이, 시클로와 사람들이 먼지 속에 한 덩어리가 되어 뒤엉키며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소를 구경하는 것처럼 신기했다.
무질서한 것 같지만, 무질서 속에 강의 흐름처럼 질서가 있었다.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조금 답답하기는 했으나 통행의 흐름이 멈추지는 않았다.

다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지수 3위인 베트남 사람들이 행복을 찾겠다고 행복지수 41위 한국을 찾는 이유가 아이러니하다.
한국은 한 해 GDP 1조4495억 달러로 세계 13위이다. 그런가하면 OECD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지고 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다.
1인당 GNP가 10만4000달러로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 행복지수는 122위다. 만족과 행복은 다른 것인가.

서로 부딪쳐 시비를 하거나 고성인 오가는 모습도 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구시가지 골목을 한 바퀴 돌면서, 전쟁 같은 삶의 모습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들은 비록 조금 남루하고 지쳐 보이기는 했으나 결코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삶이 치열해 역동적으로 느껴졌다.
길거리 카페며 쌀국수를 파는 음식점과 골동품상점이 즐비한 선 조붓한 36번 구시가지는 서양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이들은 택시를 타지 않고 느린 시클로를 이용하거나 천천히 걸어나가면서 길

우리는 압축성장으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인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행복지수 1위인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 부탄 왕이 “우리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행복의 척도는 다른 사람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잣대로 재는 것이 옳다. 그래야 물질의 풍요가 결코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부탄이나 베

행복지수와 참사공화국

거리 카페의 난쟁이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차를 마시고 골동품상점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트남 등 자본주의 때가 묻지 않는 나라에서는 생활지수와 행복지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

호안킴에 호수 옆 수증인형극장 부근에서 나를 태운 오십대로 보이는 남자는 맘을 뻔뻔 흘리면서도 연신 웃고 있었다.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오늘은 손님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운임으로 50만 동(한화 2만5000원)을 벌 수 있어 행복해하는 모습이 천진스럽도록 아름다웠다. 50만 동이면 구운 돼지고기를 넣은 쌀국수 ‘분짜’를 배불리 먹고도 20만 동이나 남는다고 했다.

그들은 돈이 없어 조금 불편할 뿐 불행하지는 않다.
나는 중심기를 돌고 나서 정해진 50만 동 외에 팁으로 2만 동 (1000원)을 더 주었다. 밥벌장이 된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시클로 문은 그때서야 내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었고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서투른 영어로 “세월호 배에 아직 사람이 있어요? 어제 한국서 소하다가 16명 또 죽었어요. 한국은 왜 시고가 많아요?”하고 물었다.

내가 하노이 거리에서 만난 베트남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기는 해도 당당하고 행복해보였다.
그들의 행복지수가 의외로 높다. 유엔은 올해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세계 156개 국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지수 (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발표했다.
그 결과 베트남은 세계에서 3위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41위로 베트남에 비해 한참 뒤다.

내가 하노이 거리에서 만난 베트남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기는 해도 당당하고 행복해보였다.
그들의 행복지수가 의외로 높다. 유엔은 올해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세계 156개 국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지수 (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발표했다.
그 결과 베트남은 세계에서 3위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41위로 베트남에 비해 한참 뒤다.

1인당 국민소득 1500달러의 베트남이 10배가 되는 2만6000달러의 한국보

세월호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은 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떠오른다. 참사공화국이 참으로 부끄럽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겠다. 광각은 우리를 슬프게 할뿐 희망이 되지는 않는다. <소설가>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텍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1) 리프팅레이저 : 볼레라, 써미지, 워너웃 백화치료
- 2) 에드레이저 : 수주스팀,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 3) 초음파 레이저 : 헤파엑스, 다이오우드제로
- 4) 피부 미백 : 쉐닝스킨 엑셀, 쉐닝스킨, 쉐닝스킨
- 5) 주름·출혈 : 프락셀듀얼, 울트라펄스싱크로, 프랙토라 인트라셀, 프락셀 세나
- 6) 모공 : 엔티지, 프락셀5종
- 7) 비인 : 네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문양점] 문양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